

왜 그리스도인이 시를 읽어야 할까?

◎ 조신권 (연세대 명예교수)



성경, 아름다움을 노래하다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를 믿고 따르며 그를 배우고 본받아 사는 사람이다. 예수를 배우고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진리 안에 살아야 한다. 예수께서는 정식으로 수사학을 배우신 적도, 다윗처럼 직접 시를 쓰신 적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근 140종에 달하는 비유나 산상 설교(마 5-7장), 내러티브들에는 그분의 풍부한 상상력과 시적 자질이 잘 드러나 있다.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는 “그는 상상력이 풍부하다. 그의 자질의 밑바닥에는 예술가의 자질과 같은 것, 즉 강렬하고 불꽃 같은 상상력이 있었다.”라고 했다. 예수의 산상 설교는 대부분이 시인데 그중에서도 마태복음 6장 28-29절을 예로 들어 보겠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

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러한 성경의 시나 신앙시, 절품(絶品)으로 알려진 시들을 읽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시를 읽는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큰 쾌락을 얻는 것도 아닌 데 말이다. 그러나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짙막한 시구에서 이제까지 들어본 적 없는 최고의 소리를 듣게 되고 내면적 미의 심저(深底)를 들여다보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초라한 들판’에 피었으나 ‘지상의 군왕’보다 더 ‘아름다운 옷’으로 차려입은 그 ‘백합화’를 볼 수도 있고, ‘내면적 미’의 넓은 지평에서 내다보는 그 ‘아름다운 마음의 눈’과 마주칠 수도 있다. 황량한 들판이 비단 용단같이 보이고 실제로 그렇다 할지라도, 그 본질 곧 내면이 아름답지 않으면 이런 아름다운 세계를 그려 낼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어떤 시인들보다도 아름다운 내면세계와 깊은 신비를 투시할 수 있는 영안과 상상력을 지니신 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권세’보다 더한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예수의 말씀에서 우리는 외적이고 큰 것보다는 내적이고 작은 것,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 지상적인 것보다는 천상적인 것,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 ‘밖’보다는 ‘안’, ‘아래’보다는 ‘위’, ‘많음’보다는 ‘하나’, 그리고 내재적인 질서와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처럼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유하고, 의미화하고, 형상화하는 천상지향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계셨다. 그리스도인들은 지혜와 신앙의 성숙·신장, 풍부한 정서의 고양, 바른 가치관의 형성, 개인과 사회 성장의 원활유, 영혼의 상흔 치유 등을 위해 시를 읽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세계관을 갖고 그것으로 시대정신과 당대의 문화를 직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예수께서는 수많은 경험과 과정을 통해 이러한 세계관을 구성하시게 되었고 그것을 비유와 시 속에 담아내실 수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가정에서 어머니 마리아의 경건한 신앙을 전수받으셨으며,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을 통해 목공술을 익히셨고 영혼을 연단시키며 다듬으실 수 있었다. 또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다양한 체험을 쌓고 삶의 지혜와 성숙을 이룩하실 수 있었다. 예수께서는 누구보다도 자연을 사랑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산과 바다를 좋아하셨다. 그분은 단순히 자연의 생태와 그 아름다움 뿐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조화 그리

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섭리를 읽어내실 수 있었다. 즉, 자연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런 자연 세계의 아름다움과 경이를 느끼고 체험하면서 지혜도 깊어지셨다. 또, 이러한 체험들을 오랜 시간 반추하고 정리하여 언어로 재구성하고 묘출(描出)하신 것이다. 깊이 사유한 후 명료한 언어로 재구성된 경험은 세상의 움직임이나 숨은 질서에 대한 감각을 키워 준다. 즉 이 세상과 세상살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와 눈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세계관이라 한다.

그리스도인, 왜 시를 읽어야 할까?

세계관은 신학이나 철학 같은 사상 체계라기보다 오히려 기본적인 인식의 틀이라 할 수 있다. 사물을 보는 방식, 또는 그것을 좇아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 또는 삶의 방식이라는 말이다. 또한 세계관은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가치를 결정해 주고 주변 세계의 현상들을 판단·분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가치 지향적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사람, 자연 및 환경과의 관계에서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을 분별하고 모델을 제시해 주는 일종의 가치 체계이다. 모델은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미래 지향적 이상을 함축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가치관과 인생관 등이 두루 포함되어 있는 세계관의 전시장이 바로 시적 언어를 기본으로 하는 문학 작품 특히 시 작품이다. 이러한 시 속에 기독교적 세계관이 가장 구체적으로 그림을 보듯 선명하게 나타나게 된다. 세계관이 바르면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삶을 갖게 된다. 그만큼 세계관은 중요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시를 읽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다음은 18세기 말 영국 전기 낭만파의 대표적 시인인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 1757-1827)의 “런던”(London)이라는 시이다.

런던

윌리엄 블레이크

자유가 허락된 길 위를 나는 걸어 다니네,
자유가 허락된 템즈 강이 가까이 흐르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얼굴에서
약함의 징표, 근심의 징표를 나는 보네.

모든 사람들 외침마다
모든 아기들의 공포의 울음마다,
모든 목소리마다, 모든 금지마다,
정신이 버려낸 족쇄소리를 나는 듣네.

굴뚝 청소부의 외침 소리가
검은 교회를 얼마나 간담 서늘하게 하는가,
불운한 병사들의 한숨이 얼마나
피가 되어 궁전 벽을 타고 흐르는가.

그러나 한밤중 거리마다에서 내가 듣는다.
젊은 창녀의 저주가
얼마나 갓난 아가의 눈물을 마르게 하는가를,
그리고 결혼 마차를 병들어 말라버리게 하는가를.

이 시는 1789년에서 1794년 사이에 쓰인 것으로, 1794년 『순수와 경험의 노래』(Songs of Innocence and Experience)라는 시집에 묶여 출판되었다. 저자는 ‘보네’(see), ‘듣네’(hear) 등의 감각동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18세기 말 영국 사회에서 경험한 사실을 언어화 하고 있다. 1770~1790년대의 런던은 산업혁명의 위용을 과시할 만한 발전상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대도시였다. 증기기관의 발달로 인한 석탄 소비의 증가는 도시의 풍광을 바꿔 놓았다. 굴뚝마다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건물 외벽은 그늘음으로 흰색을 유지하기

London

William Blake

I wander thro' each charter'd street,
Near where the charter'd Thames does flow,
And mark in every face I meet
Marks of weakness, marks of woe.

In every cry of every Man,
In every Infants cry of fear,
In every voice, in every ban,
The mind-forg'd manacles I hear:

How the Chimney-sweeper's cry
Every blackning Church appalls,
And the hapless Soldier's sigh
Runs in blood down Palace walls.

But most thro' midnight streets I hear
How the youthful Harlots curse
Blasts the new-born Infants tear,
And blights with plagues the Marriage hearse.

힘들었다. 템즈 강에는 식민지에서 들어오는 원자재 및 원료를 가득 실은 증기선과 창고가 난립해 있었다. 강은 오염되었고 그 흐름조차 자유로워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더 많은 생산과 소비를 위해 일찍부터 고단한 일상을 시작했다.

고단하기로는 이른 새벽부터 도구가 가득 든 가방을 메고 집집마다 다니며 굴뚝을 청소하는 어린 굴뚝 청소부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굴뚝 닦아요’란 ‘외침’(cry)이 어린 소년들의 ‘울음’(cry)처럼 들리고, 일

찍부터 생계를 위해 부모와 떨어져 도시생활을 해야 하는 이들의 처지는 도시의 빈곤과 빈곤의 도시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교회는 이들을 불러 벽을 하얗게 ‘닦는다’(appall). 그러나 아마도 이들의 ‘외침소리’, 즉 빈민 구휼에 무심한 ‘교회’와 ‘성직자’는 내심 소스라쳐 놀랐을(appall) 것이며, 다행히 양심적으로 성찰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신들의 무감각과 위선에 두려웠을 것이다.

1776년에는 미국 독립전쟁에 군대를 보내고, 1792년부터 혁명 프랑스와 전쟁을 시작한 영국은 곳곳에서 전쟁에 보낼 군인들을 모집 혹은 징집했다. 심지어 당시 국왕이던 조지 3세의 가문인 하노버 왕가와 관련하여 독일에서 용병을 불러오기도 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와 전쟁에 동원되어 무참히, 무가치하게 죽어 갔다.

한편 마땅한 직업을 가질 수 없었던 여성들은 물려받은 재산이 있거나 남편에게 의존해야만 생존이 가능했다. 둘 다 해당 사항이 없는 여성들은 가정교사나 하녀, 그것도 아니면 매춘밖에 할 수 없었다. 당시 대도시의 여성 매춘 인구 증가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적 위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자 성 도덕의 위선적인 얼굴을 폭로하는 것이었다. 혼전 순결이 교회와 도덕의 가르침대로 준수되고 존중된다면, 과연 매춘 여성들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블레이크의 시에 나타난 런던에는 안타깝게도 매독균 때문에 날 때부터 눈이 먼 아기들의 울음이 퍼지면서 비참하게 독자들의 귀를 관통한다.

우리는 18세기 도시 생활의 이면을 이 “런던”이라는 시에서 읽어낼 수 있다. 어린 굴뚝 청소부의 울음소리와

강제로 징병된 젊은 병사의 한숨 소리가 들린다. 밤거리 어두운 구석에서 어린 창부가 날카롭게 저주를 퍼붓고 갓 태어난 아기가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트린다. 여기에 결혼식이 아닌 장례식에 손을 맞잡은 신혼부부를 실은 영구차 소리가 들려온다. 이러한 내용들은 당시 런던의 부패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시를 통해 세상을 노래하라

4연으로 구성된 비교적 짧은 시를 통해, 우리는 산업혁명 이후 런던이라는 도시의 퇴폐상과 악의 꽃들이 만발한 어두운 영국 도시 사회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 우리들은 이 악한 세상에 적나라하게 노출된 채, 감각기관은 마비되고 순수한 감수성은 쇠멸되어 가고 있다. 동시에 우리의 영안과 영각(靈覺)과 철두철미한 신앙 의식도 사멸되어 가고 있다. 추하고 악한 것을 보고도 의분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황금에 눈이 멀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숭엄하고 고상한 정신이나 아름다움을 보고도 경이와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정신계와 영계를 피폐화시키고 사막화시키는 저속한 막말과 파렴치한 행위에 더 흥분하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이것은 좋은 시집 등의 책 대신 시청각 미디어와 영상매체에만 의존하고 사로잡혀 영성과 숭고한 감성이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율하고 감격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바라보고 답을 찾아내도록 하는 세계관을 갖추는 것이다. 이런 세계관은 교리나 논리적인 글이 아니라 양질의 문학 작품과 감동을 주는 명품 시들 속에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시를 읽어야 한다.



조신권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국내 제1호 영문학 박사이다. 미국 예일대학교 객원교수, 연세대학교 영문학 명예교수이자 현재 홍익대학교 초빙교수로 있다. 한국기독교어문학회 및 한국기독교어문학회 초대회장 역임하였으며 저서로는 『존 밀턴의 문학과 사상』, 『문학 속의 기독교적 세계관』 외 다수가 있고, 역서로 『T. S. 엘리엇 시집』 등이 있다.